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<a href="http://www.emerics.org/">http://www.emerics.org/</a> 2018. 11. 12.   동남아시아	<b>「이슈&amp;트렌드」</b> <b>베트남, 국영기업 외국인 소유한도 폐지 추진</b> <b>배경 및 전망</b> 작성   박나연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)
--	--

-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10월,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증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.
-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현재 49%에서 2019년 말까지 폐지하고자 함.
  -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는 이번 상한선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베트남 정부는 현재 30%로 제한된 은행과 항공 분야의 상한선도 상향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지 언론은 완전 폐지보다는 사항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과반 이상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  - 재무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토론 및 수정 절차를 거쳐 2019년 2분기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9년 4분기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표 1.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선 비교

현행 (Decree 60/2015/ND-CP)	개정안(초안)
- 국영기업: 49% ○ 단, 국제협정 및 국내법에 외국인 소유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분야는 해당법에 따라 상한선 상향 가능(안보 관련 분야는 제외) ○ 은행 및 항공 분야는 30%	- 국영기업: 제한 없음(안보 관련분야는 제외) ○ 단, 국제협정 및 국내법에 외국인 소유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분야는 해당법에 따름. ○ 은행 및 항공 분야는 상한선 30%에서 상향

자료: 베트남 재무부 및 국가증권위원회, EIU, Nikkei Asian Review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

- 베트남 정부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주식시장의 법적 틀을 완성하여 외국인 투자 확대와 국영기업 개혁 가속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자 함.
-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(MSCI)<sup>1)</sup>은 지난 6월에 발표한 ‘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(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)’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소유 제한 완화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 강화를 권고함.
  -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베트남 증시가 현재 속한 MSCI 프런티어시장지수(Frontier Market Index)를 벗어나 신흥시장지수(Emerging Market Index)로 편입되고 외국인 신규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<sup>2)</sup>.

1)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(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)은 84개국을 글로벌 투자가능시장지수(Global Investable Market Index) 분류체계에 따라 ‘선진시장지수, 신흥시장지수, 프런티어시장지수, 독립시장지수’로 나뉘어 세계 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음.

2)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은 신흥시장지수에 포함되어 있음.

-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이번 계기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시켜 민간 중심의 시장을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함.
-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정치적 이해관계, 복잡한 기업 및 계약구조 등의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어 국영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.

그림 1. 베트남 기업 소유 형태에 따른 GDP 비중 (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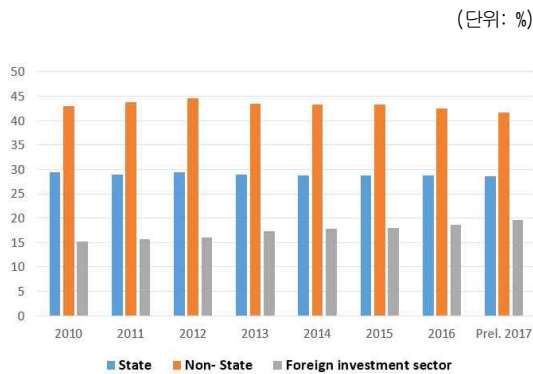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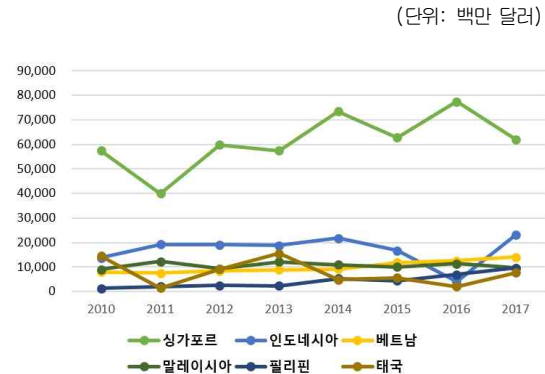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동남아 주요국의 FDI 유입액 추이 (2010~2017년)



주: 부가가치 기준

자료: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 Nam(검색일: 2018. 11. 1.)

자료: UNCTAD Stat(검색일: 2018. 10. 31.)

- 2035년 중진국 대열 합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됨.
- 현재 베트남의 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동남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를 앞서 3위를 기록함.
- 이번 법안이 2019년 말 의회에 통과된다면 베트남 증시는 2020년에 MSCI 신흥시장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국영기업 민영화를 위해 수립된 ‘2016~2020 민영화 마스터플랜’은 탄력을 받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베트남에는 현재 약 1,500개의 국영기업이 있으며 정부는 점차 지분을 매각하여 관련 법령(Decree 58)에 따라 최종적으로 100개 국영기업만을 국가 소유로 남기고자 함.
- 현재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 대상 명단에는 수자원, 석유, 광물, 철강, 제약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대형 국영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M&A 방식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추진 과정과 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. **EMERiCs**

#### 참고자료

베트남 증권위원회, 무역협회, EIU, Nikkei Asian Review, Viet Nam News 등